

공동체 소식

성탄시기

- Merry Christmas! 성탄시기는 예수성탄대축일(12월25일)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구세주를 통해 이 세상에서 시작됨을 알리는 **주님공현대축일**(1월 2일과 8일 사이 주일)과, **주님공현대축일**부터 주님세례축일(공현대축일 다음 첫 주일)까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성탄시기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는 주님세례축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 본당 2020년 달력은 원하시는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신앙생활봉헌서 작성하신 후 미사 봉헌때 또는 본당신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구역/반에서도 공지해 주십시오.

The Archbishop's Call to Share (ACTS)

- 12일(일) 교구장 주교님의 ACTS강론과 appeal 영상이 있습니다.
- ACTS에 동참하실 분들은 12일(일)까지 총무에게 제출해 주시면 모아서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구역예물도 ACTS로 보내겠습니다.

바오로딸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강의) 성경공부
- 원서: <http://uus.pauline.or.kr>
- 문의: 2020.1.31마감, 02-944-0819~24, 010-5584-8945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모집

- 2020학년도 통신으로 배우는 신학과정
- 원서접수 마감 : 2020.02.07(금)
- 포스터 및 리플렛 참조

감사합니다.

-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점심에 떡국 준비해주신 평협회원/봉사자께 감사드립니다.

제의(chasuble)

- 본당 제의 구입을 위한 donation 받습니다.
(흰색,녹색,홍색,자색,분홍색)
- 접수 : 전례부

교무금 계좌이체 정보 안내

-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상식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동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제단에 드나들거나 제대 앞을 지나가는 이는 모두 제대에 깊은 절을 해야 합니다(주교예절서 72항 참조). 독서자는 독서대에 오르기 전에 미사 전례의 중심인 제대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전례부 모임안내

- 5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독서자 모집합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2020년 1월 구역/반모임 안내

- 1구역 5일(일) 오후1시 정석원 라파엘 가정
- 4구역1반 10일(금) 저녁7시 김주연 세실리아 가정
- 3구역 17일(금) 저녁7시 고영방 스테파노 가정
- 4구역2반 31일(금) 저녁7시 차호섭 요셉 가정
- 2구역 미정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100	212	154	487
차 주	481	219	170	1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 로마노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 주	김대연 요셉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미사 복사

	시중복사 1	시중복사2
금 주	정예찬 미카엘 김지안 요한	차한나 가브리엘라 강윤후 그레고리오
차 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정원 안젤라	강미정 클라우디아 김하울 루카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호 아오스딩
차 주	이우영 가브리엘, 김동술 요한

애찬 봉사자

금 주	8조: 김민영, 천주영, 조한희
차 주	9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1월 5일 주일 성당/지하식당 청소합니다.(4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오늘의 전례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아 사막을 건너는 긴 여정을 마친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적 굳건함으로 참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께 선물로 봉헌할 것을 다짐하며 이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림 묵상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최초의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가 됩니다.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마태 2,11)

그림정미연 소화데레사 글|김옥순 수녀

제 1 독 서 : 이사야 60,1-6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화 답 송 :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 에페소 3,2.3.5-6

<지금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계시되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들도 약속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 음 : 마태오 2,1-12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빛을 찾아가는 이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려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지금은 편리한 교통수단 덕분에 큰 힘이 안 들지만, 과거에는 도보로 고생고생하면서 가야 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열망이 없으면 감히 엄두도 내지 못 할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그 멀고 험한 여정을 거쳐 예수님을 만나는 세 명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멀리 동방(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로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제사 때 사용되는 향료인 유향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징입니다. 몰약은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로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위해 수난을 당하실 분임을 예고하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하느님을 향한 열망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이신 그분만이 우리 내면의 어둠과 주변의 암흑을 몰아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안에서만 믿음과 희망, 사랑이 가득한 '나'로 성장하고 '우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예물로 바치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바치면서 돈, 명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임금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유향을 바치면서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상처,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느님으로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몰약을 바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 바람, 생각, 한 마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받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과 교회가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는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로 인간에게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욕심'(창세 3,5 참조), 곧 자신이 하느님의 피조물임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는 경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신앙인은 이런 유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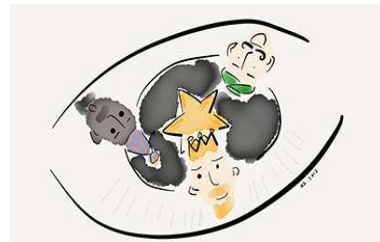
을 거슬러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세상과 이웃, 나 자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변질될 위험이 큼니다. 하느님이 빠지면 신앙은 독선으로 흐르고, 정의는 폭력으로 변질되며, 아름다운은 천박해지고, 지식은 혐오스럽게 되기 쉽습니다.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태양이 비칠 때 영롱한 빛깔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것은 하느님의 빛 안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빛을 찾아가서 그 안에 머무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이 사람들



주님, 당신 눈에 가득한 당신의 백성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당신을 기다려 왔는지요

당신 눈에 가득한 이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마태 2: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올해 지고 갈 십자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기에 제가 짊어질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그 십자가는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인 동시에 제가 얻을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지요. 목걸이처럼 목에 매달려 달랑거릴 정도로 가벼운 십자가라면 지고 가기에 아무런 부담이 없겠지만, 그런 만큼 은총과 영광의 기쁨도 크지 않을 것만 같아서 올해도 너무 가벼운 십자가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마다의 십자가도 결코 그런 가벼운 십자가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평소에 남편이 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의견이 안 맞아 다투거나 속상할 때면, ‘아휴~ 저이가 내 십자가야, 십자가. 저이가...!’ 하면서 가슴을 치곤합니다. 물론 어찌할 수 없기에 반은 농담처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남편에겐 제가 십자가 같은 존재겠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부피도 무게도 다 제각각이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 돈, 정신적 고통에 빚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해서 짊어진 것이 아니기에 벗어나기 힘들지만, 고통을 감내하고 끝까지 지고 가서 내려놓는 순간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천재적 희극배우이자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보면 멋있고 행복해 보이지만 어느 누구, 어느 가정이나 가까이 들여다보면 힘들고 슬픈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고 앞길을 내다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항상 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아침, 새해 아침에 나의 십자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올해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일 년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은 내게 어떤 십자가가 지워질까? 내 십자가뿐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일터, 이웃, 사회, 국가의 십자가까지 같이 지고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의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고통과 기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의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면 내일의 십자가는 조금 가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땅에 내려놓게 되는 그대에 고통이 기쁨과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곳에

임주빈 모니카 | KBS 심의위원, 시그니스(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서울 회장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너는 복의 소식이니
왕세 12.2

